



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

(58689)목포시 비파로 64(상동) 한솔빌딩 5층 T.061-283-4571 F.0303-0955-4571 www.okmokpo.or.kr

■공동대표: 송영중, 김신규, 박승욱, 조순형 ■집행위원장: 김광배

■정책위원장: 하상복 ■무안군민회장: 조기석 ■간사: 김창모

수신	각 언론사
발신	목포경실련
문의	목포경실련 (김창모 간사 / 061-283-4571, 010-9143-0728.)
일자	2017. 09. 14(목).
제목	[성명]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군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라.(총1매)

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.

지난 7월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
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,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. 김철주 무안군수와 함께 친형,
관련 공무원 등도 구속기소가 되면서 무안군은 전국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시간들이
었다. 이에 <목포경실련>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

김철주 군수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. 친·인
척과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우선되어야 한다.
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군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
다. 행정공백을 초래한 책임, 친·인척과 연계해 자행한 불법비리에 대한 책임, 인사권과 직위를
활용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. 나열하자면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참혹할 정도로 심각
하다.

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(5등급) 전국82개 군 단위 중 79위, 부패발생
위험도가 심각한 수준, 오명으로 기록된 무안군의 지표다. 김철주 무안군수는 자리에 연연하는
추태는 그만 보이고 우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. 다음 재판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고 공식적으
로 사과와 사퇴를 표명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‘마지막 도리’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
이다. <끝>